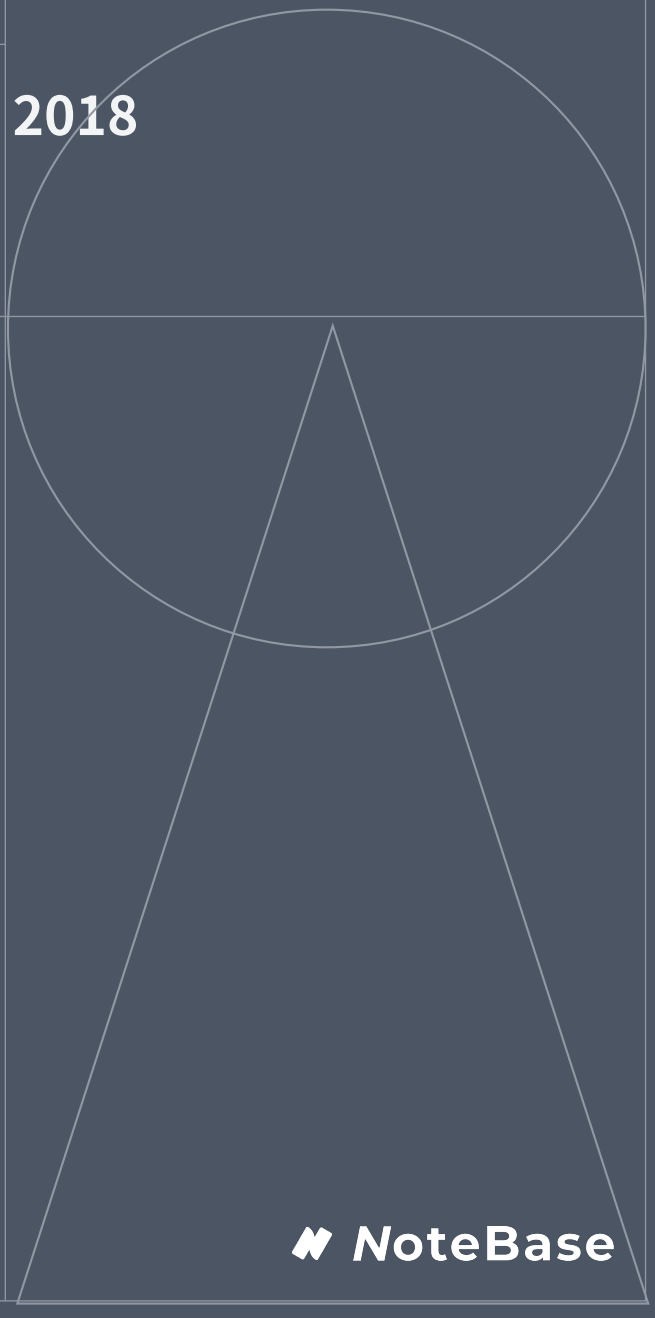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8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8

문 1. 밑줄 친 말 중 맞춤법에 따라 올바르게 쓰인 것은?

① 그는 돈이 없어서 막걸리도 푼푼이 못 마셨다.
② 그 서점은 내가 오면가면 들르는 곳이다.
③ 그는 숨바꼭질을 하면서 갈잎 낫가리 속에 숨었다.
④ 나는 가방을 엇다가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낱말의 표준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맞춤법에 맞는 표준 표기는 낱말의 뜻과 형태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오면서 가면서'라는 뜻의 부사 '오면가면'만 바르게 쓰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 '푼푼이'가 틀린 표기이다.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라는 뜻으로는 '푼푼히'라고 쓰므로, '막걸리도 푼푼히 못 마셨다'가 바른 표현이다.
② O — '오면가면'은 '오면서 가면서'라는 뜻의 부사이므로, '내가 오면가면 들르는 곳'이라는 표현이 맞춤법에 맞다.
③ X — '낫가리'가 틀린 표기이다. 낟알이 붙은 채로 곡식을 쌓은 더미를 뜻하는 말은 '낟가리'이므로, '갈잎 낟가리 속에 숨었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엇다가'가 틀린 표기이다. '어디에다가'의 준말은 '어따가'이므로, '가방을 어따가 두었는지'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낫가리'처럼 실제 발음과 비슷해 보이는 표기를 고르거나, ④의 '엇다가'를 '어디에다가'의 준말로 착각하기 쉽다. 낱말의 본래 형태와 뜻을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문맥 속 뜻으로 먼저 바꾸어 본 뒤 표준어의 형태를 대입한다. 넉넉하게는 '푼푼히', 오면서 가면서는 '오면가면', 곡식 더미는 '낟가리', 어디에다가는 '어따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푼푼히·오면가면·낟가리·어따가의 표기를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2.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그대로이다.
② '해돋이'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
③ '앞문'은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④ '설날'은 조음 방법은 그대로이고, 조음 위치가 바뀌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음운 변동 전후의 자음을 비교하여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각각 유지되는지 바뀌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음 위치는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좁히는 자리이고, 조음 방법은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같은 조음 위치의 자음끼리 바뀌어도 조음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조음 방법을 유지하면서 조음 위치만 달라질 수도 있다. 변동한 자음을 실제 발음으로 바꾼 뒤 두 기준을 따로 비교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갈등'은 [갈뜽]으로 발음되어 ㄷ이 ㄸ으로 바뀐다. ㄷ과 ㄸ은 모두 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이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그대로이다.
② O — '해돋이'는 [해도지]로 발음되어 ㄷ이 ㅈ으로 바뀐다. ㄷ은 잇몸소리인 파열음이고 ㅈ은 센입천장소리인 파찰음이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다.
③ O — '앞문'은 [암문]으로 발음되어 ㅂ이 ㅁ으로 바뀐다. 두 자음은 모두 입술소리이므로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므로 조음 방법은 달라진다.
④ X — '설날'은 [설랄]로 발음되어 ㄴ이 ㄹ로 바뀐다. 틀린 표현은 '조음 방법은 그대로이고, 조음 위치가 바뀌었다'이다. ㄴ과 ㄹ은 모두 잇몸소리이므로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며, 비음인 ㄴ이 유음인 ㄹ로 바뀌므로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변동 여부를 서로 바꾸어 제시한 선지이다. ㄴ과 ㄹ의 글자 모양이나 소리의 느낌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조음 위치까지 달라졌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두 자음의 조음 위치는 모두 잇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표준 발음을 적고 변동 전 자음과 변동 후 자음을 찾는다. 그다음 두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각각 비교한다. 위치와 방법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고 두 축으로 나누면 선지의 뒤바꾸기 함정을 피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ㄷ→ㄸ은 위치·방법 유지, ㄷ→ㅈ은 위치·방법 변화, ㅂ→ㅁ과 ㄴ→ㄹ은 위치 유지·방법 변화이다.

NoteBase

문 3. 이 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이기보다는 특수한 언어의 문제로 시적 상상력과 수사적 풍부성의 도구이다. 나아가 은유는 전형적으로 단순히 언어만의 특성, 사고와 행위보다는 말의 특성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유가 우리의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다.
>
>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들은 단순히 지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가장 세속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지배한다. 개념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한다. 따라서 개념체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실재를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일 개념체계가 대부분 은유적이라는 우리의 제안이 옳다면 우리의 사고방식, 경험 대상, 일상의 행위 등은 매우 중요할 정도로 은유의 문제이다.
>
> – 레이코프 ·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

① 은유는 말의 특성으로 특수한 언어의 문제이다.
② 은유는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구조화할 수 있다.
③ 개념체계의 대부분이 은유적이라는 점이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되고 있다.
④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들은 지성의 문제로, 일상적인 행동을 지배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쓴이가 반박하는 종래의 은유관과 새롭게 제시하는 핵심 주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래에는 은유를 시적 상상력과 수사적 풍부성을 위한 특수한 언어의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글쓴이는 은유가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으며, 사고와 행동의 바탕인 개념체계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라고 본다. 개념체계는 지각,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 구조화하므로 은유는 일상적 실재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말의 특성으로 특수한 언어의 문제’라는 표현은 글쓴이가 소개한 종래의 관점이다. 글쓴이의 주장은 은유가 단순히 특수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사고와 행동을 이루는 개념체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② O — 글은 개념이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구조화하고, 그 개념체계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은유가 우리가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한다.
③ X —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되고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글은 개념체계가 대부분 은유적이라는 내용을 ‘우리의 제안’이자 ‘만일 … 옳다면’이라는 가정으로 제시할 뿐, 사람들이 널리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④ X — ‘지성의 문제로’라는 표현이 틀렸다. 글은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들이 단순히 지성의 문제가 아니며 일상적 행동까지 지배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성의 문제를 넘어 일상적인 행동도 지배한다’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첫 문단 앞부분에 실제로 나온 내용이지만 글쓴이가 지지하는 주장이 아니라 반박 대상으로 제시한 종래의 관점이다. ③은 글의 ‘우리의 제안’과 ‘만일 … 옳다면’을 이미 널리 인정된 사실로 바꾸었고, ④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정 표현을 반대로 바꾸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장 파악 문제에서는 ‘그러나’, ‘따라서’, ‘만일’과 같은 연결 표현을 기준으로 기존 견해, 글쓴이의 핵심 주장, 가정적 결론을 나눈다. 선지가 지문의 문장을 사용하더라도 그 문장이 글쓴이의 견해인지 반박 대상인지와 부정·조건 표현이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은유는 특수한 말의 장식이 아니라 일상적 사고·행동·삶의 방식을 구조화하는 개념체계이다.

NoteBase

문 4. 글쓴이가 다음 글을 쓴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간의 삶에서 돈의 힘은 막강하다. 지구상에는 돈의 힘을 누리는 부자도 많지만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는 사람도 10억 명 이상은 된다. 물론 그보다 더 못한 여건 속에서 겨우 생존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도 오늘날 전 세계의 화폐 경제는 연간 총생산액이 50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경 7,500조에 이른다. 상상이 안 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만약 그 액수가 연간 50조 달러가 아니라 100조 달러라면 어떨까?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50조 달러가 있다고 한다면 말이다.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겠지만 그 돈은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다.
>
> 미국에 사는 엔키 탠 씨는 2004년 12월 한밤중에 캘리포니아에서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당시 그곳은 갑자기 밀어닥친 지진 해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내과 의사인 엔키 씨는 그곳에서 다친 아이들을 치료하고 피해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엔키 씨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수천 명이 대재앙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8개국에서 모여들었다.
>
> 한편 영국에 사는 샤론 베이츠 씨는 관절염으로 움직이기가 불편하면서도, 간질병 환자인 남편을 간병한다. 자녀 둘을 돌보는 그녀는 '최고의 엄마상'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을 보살피는 일로 돈을 받지는 않는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엔키 씨의 자원봉사도 당연히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활동이다. 바로 이런 것들에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다. 이런 무보수 활동은 돈을 받고 하는 경제 활동과 마찬가지로 무척 가치 있는 일이다.
>
> 돈을 받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활동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사 노동이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빨래와 청소를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약 다른 집에 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이나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일, 어머니의 가사 노동은 돈만 오가지 않을 뿐이지, 그 하나하나가 모두 돈이 되는 생산적인 일인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사람을 고용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
>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수치만으로 부를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만으로 부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은 적게 벌지만 부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경제적인 수치만으로 부를 평가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회는 머지않아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
> – 앨빈 토플러, '보이지 않는 돈' –

① 지구상에서 보이지 않는 돈의 가치는 50조 달러이다.
②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③ 자원 봉사 활동은 경제 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일이다.
④ 부의 가치는 경제적 수치뿐 아니라 무보수 활동도 포함해야 한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여러 사례와 수치를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쓴이의 의도는 글에 제시된 개별 사실을 요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실들을 제시한 까닭과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중심 주장을 밝힌 것이다. 이 글은 자원봉사와 가사 노동을 예로 들어,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무보수 활동도 가치 있는 생산적 활동이므로 부를 평가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보이지 않는 돈의 가치는 50조 달러이다'이다. 본문의 50조 달러는 당시 눈에 보이는 세계 경제의 연간 총생산액이며, 글쓴이는 100조 달러를 가정하여 보이지 않는 부의 존재를 생각하게 했을 뿐 그 가치를 정확히 50조 달러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활동에도 막대한 부와 가치가 있다'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행복이 있다'이다. 글은 행복의 위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와 가사 노동 같은 무보수 활동에 보이지 않는 부와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강조한다. 올바르게는 '보이지 않는 무보수 활동 속에도 가치 있는 부가 숨어 있다'이다.
③ X — 자원봉사 활동이 경제 활동만큼 가치 있다는 내용은 본문과 일치하지만, 이는 글쓴이의 전체 의도를 이루는 한 사례에 한정된다. 가사 노동까지 포괄한 중심 의도로 고치면 '자원봉사와 가사 노동 같은 무보수 활동도 가치 있는 생산적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이다.
④ O — 글쓴이는 눈에 보이는 돈만으로 부를 평가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와 가사 노동 같은 무보수 활동의 가치도 부의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 전체를 포괄하는 의도이므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본문의 한 문장과 직접 일치하여 정답처럼 보이지만 자원봉사 사례만 다루므로 범위가 좁다. 글쓴이의 의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일부 사례의 내용보다 자원봉사와 가사 노동을 모두 아우르는 마지막 중심 주장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의도를 묻는 경우 반복되는 사례들이 공통으로 뒷받침하는 결론과 마지막 문단의 주장에 주목한다. 한 사례만 옮긴 선지보다 글 전체의 대상과 주장을 빠짐없이 포괄한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글쓴이의 의도는 '개별 사례'가 아니라 '사례들을 제시한 목적과 전체 주장'이다. 이 글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돈뿐 아니라 무보수 활동도 부의 가치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권리가 공리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권리의 도덕적 근거는 무엇일까? 여기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개인은 타인의 행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자기소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내 삶, 내 노동, 나라는 인간은 내게, 오직 내게만 속한다. 사회가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나) 보편적 인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공리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면, 단순히 집단적 행복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꾸준히 거론되는 자기소유라는 개념에는 열렬한 자유지상주의자만이 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즉 낙오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는 자유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장려할 거의 모든 수단을 배제하는 최소국가, 합의를 완벽한 행위로 칭송하여 합의한 식인 행위나 노예 매매처럼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마저 인정하는 사고방식이다.
(라) 인간을 존중하면 장기적으로는 공리가 극대화된다는 이유로 인권을 옹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권리를 존중하는 이유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고통을 안겨준 행위를 비난하되, 전체 공리가 줄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과, 그런 행위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아이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다르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

① (가)-(나)-(다)-(라)　② (가)-(다)-(라)-(나)
③ (나)-(라)-(가)-(다)　④ (나)-(다)-(가)-(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속 표현과 논제의 도입·반박 관계를 바탕으로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를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나) → (라) → (가) → (다)
1. (나) — 보편적 인권은 개인을 집단적 행복의 도구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충돌한다고 밝힌다.
2. (라) — '그러나 이 경우'로 이어 받아, 장기적 공리를 이유로 인권을 옹호하더라도 그것은 권리 보유자 자체를 존중하는 것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 (가) — 공리주의가 권리의 도덕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논의 뒤에, 자유지상주의의 '자기소유' 원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4. (다) —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로 전환하여, 앞서 제시한 자기소유 개념이 낳는 극단적 귀결을 비판한다.
왜 이 순서인가: (라)의 '이 경우'는 (나)에서 제기된 공리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이어 받고, (다)의 '자기소유라는 개념'은 (가)에서 먼저 소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나)-(다)-(라)는 자기소유를 제시한 뒤 공리주의 문제로 되돌아가고, (다)의 자기소유 비판과 (라)의 공리주의 비판도 떨어뜨린다. 틀린 배열 '(가)-(나)-(다)-(라)'는 '(나)-(라)-(가)-(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가)-(다)는 자기소유의 제시와 비판으로 연결되지만, 이를 글의 첫머리에 놓으면 (나)-(라)의 공리주의 비판 뒤에 제시되는 대안이라는 흐름이 사라진다. 또한 (라)의 '이 경우'는 뒤의 (나)가 아니라 앞의 공리주의 논의를 받아야 한다. 틀린 배열 '(가)-(다)-(라)-(나)'는 '(나)-(라)-(가)-(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나)에서 공리주의로는 보편적 인권을 충분히 근거 짓기 어렵다고 밝히고, (라)에서 장기적 공리를 내세운 반론까지 비판한다. 이어 (가)에서 자기소유권을 대안으로 제시한 뒤, (다)에서 그 대안의 극단적 귀결을 비판하므로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다.
④ X — (다)는 자기소유 개념의 문제점을 다루므로 그 개념을 소개하는 (가)보다 뒤에 와야 한다. 또한 (라)의 '이 경우'는 (나)의 공리주의적 인권 옹호 가능성을 이어 받으므로 두 문단이 먼저 붙어야 한다. 틀린 배열 '(나)-(다)-(가)-(라)'는 '(나)-(라)-(가)-(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다)만 보면 '자기소유의 제시 → 비판'이어서 곧바로 이어 붙이기 쉽다. 그러나 전체 글에서는 먼저 (나)-(라)가 공리주의를 권리의 근거로 삼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하고, 그다음 (가)가 자유지상주의의 대안을 내놓는다. 특히 (라)의 '이 경우'와 (다)의 '자기소유라는 개념'이 각각 무엇을 이어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문제에서는 지시 표현과 반복어의 선행 대상을 먼저 찾는다. 이 글에서는 (라)의 '이 경우'가 공리주의적 인권 옹호를, (다)의 '자기소유라는 개념'이 (가)의 자기소유 원리를 이어 받으므로 (나)-(라), (가)-(다)를 각각 묶는다. 그 뒤 '기존 근거 비판 → 대안 제시 → 대안의 한계 비판'이라는 전체 논리로 두 묶음의 순서를 정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공리주의 비판 (나)-(라), 자기소유 제시와 비판 (가)-(다): (나)-(라)-(가)-(다)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시조에 사용된 표현 기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매게 뽀친 가토릐 안과
> 大川(대천)바다 한가온ᄃᆡ 一千石(일천석) 시른 ᄇᆡ에 노도 일코
> 닷도 일코 뇽총 근코 돗대 것고 치도 빠지고 ᄇᆞ람 부러 물결
> 치고 안개 뒤섯계 ᄌᆞ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천리만리)
> 나믄ᄃᆡ 四面(사면)이 거머어둑 져뭇 天地寂寞(천지적막)
> 가치노을 ᄯᅥᆺ는ᄃᆡ 水賊(수적) 만난 都沙工(도사공)의 안과,
> 엇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ᄀᆞ을ᄒᆞ리오.
>
> – 작자 미상 –

①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②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
③ 기상청은 동작구에, 서울시에, 나아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④ 우리의 국토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이며, 정신입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조에 쓰인 비교, 점층, 열거의 표현과 장소·건물로 기관을 대신 나타내는 환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교법은 두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방법이다. 점층법은 의미나 강도를 점차 확대하거나 고조하는 방법이고, 열거법은 관련 내용을 잇달아 늘어놓아 뜻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환유법은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명칭으로 그 대상을 대신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 시조는 화자의 마음을 매에게 쫓긴 까투리와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에 견주고, 도사공의 위기를 여러 사건으로 열거하면서 점차 심화한다. 그러나 장소나 건물의 이름으로 기관을 대신 나타내는 환유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수녀보다는 더욱 외롭구나'는 '너의 넋'과 '수녀'를 '보다'로 견주는 비교 표현이다. 시조에서도 화자의 마음을 매에게 쫓긴 까투리와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에 견주므로 같은 비교 방식이 나타난다.

② X — '청와대와 백악관'은 건물·장소의 이름으로 각각 한국과 미국의 정부 또는 대통령 기관을 대신 나타낸 환유법이다. 틀린 판단은 이 환유법이 시조에도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이 시조에는 환유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③ O — '동작구→서울시→대한민국'은 공간의 범위를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넓혀 가는 점층 표현이다. 시조에서도 노와 닻을 잃는 일에서 시작해 돛대와 키까지 망가지고, 풍랑·안개에 이어 수적까지 만나는 위기가 거듭 심화되므로 점층적 표현이 나타난다.

④ O —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이며, 정신'은 관련 대상을 반복되는 문장 구조로 잇달아 제시한 열거 표현이다. 시조에도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용총 끊고, 돛대 꺾고, 키도 빠지고'처럼 불리한 상황을 잇달아 늘어놓는 열거법이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길고 비유적인 시조라는 인상만으로 모든 비유법이 쓰였다고 판단하면 ②를 놓치기 쉽다. 특히 ②의 '청와대와 백악관'은 단순한 장소 나열이 아니라 건물 이름으로 정부 기관을 대신한 환유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선지의 표현 기법을 이름 붙인 뒤 작품에서 같은 구조를 찾는다. '보다'로 견주면 비교, 범위나 강도가 커지면 점층, 비슷한 요소를 연속해 늘어놓으면 열거, 밀접한 관련물로 본래 대상을 대신하면 환유로 판단한다. 부정형 발문의 '나타나지 않은 것'도 마지막에 다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견주면 비교, 세지면 점층, 늘어놓으면 열거, 관련된 이름으로 대신하면 환유이다. 이 시조에는 환유가 없다.

NoteBase

문 7. <보기>에 제시된 ㉠~㉣의 작품을 창작 시기 순으로 배열한 것은?

< 보 기 >

㉠ 내 님믈 그리ᄉᆞ와 우니다니
산(山) 졉동새 난 이슷ᄒᆞ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ᄃᆞᆯ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ᄅᆞ시리이다.
㉡ 지뵈 바회 ᄀᆞ새
자ᄇᆞ몬손 암쇼 노히시고,
나ᄅᆞᆯ 안디 붓그리샤ᄃᆞᆫ
고ᄌᆞᆯ 것거 바도림다.
㉢ 당시(當時)예 녀던 길흘 몇 ᄒᆡ롤 ᄇᆞ려 두고
어듸 가 ᄃᆞ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 ᄃᆡ ᄆᆞᄋᆞᆷ 마로리.
㉣ 四祖(사조)ㅣ 便安(편안)히 몯 겨샤 현 고ᄃᆞᆯ 올마시뇨.
몃 間(간)ㄷ 지븨 사ᄅᆞ시리잇고.
九重(구중)에 드르샤 太平(태평)을 누리싫 제 이 ᄠᅳ들 닛디 마ᄅᆞ쇼셔.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각 인용문의 작품과 갈래를 판별한 뒤 신라 향가, 고려가요, 조선 전기 악장, 조선 시대 시조의 시대 순서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ㄴ → ㄱ → ㄹ → ㄷ

1. ㄴ — 신라 향가 「헌화가」이다. 노인이 암소를 놓고 꽃을 꺾어 바치겠다는 내용이 작품의 핵심 표지이다.
2. ㄱ — 고려 시대의 「정과정」이다.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고려가요이다.
3. ㄹ — ‘사조’, ‘구중’, ‘태평’ 등의 표현으로 왕조의 창업과 태평을 노래하는 조선 전기 악장 계열의 작품이다.
4. ㄷ — 옛길로 돌아온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조선 시대 시조이다.

왜 이 순서인가: 향가는 고려가요보다 앞서고, 고려가요는 조선 전기 악장보다 앞서며, ㄷ의 시조는 ㄹ보다 뒤에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ㄴ’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ㄴ 「헌화가」는 신라 향가이고 ㄱ 「정과정」은 고려 시대 작품이므로 ㄴ이 먼저이다. 또한 ㄹ은 ㄷ보다 앞선다. 틀린 배열 ‘ㄱ-ㄴ-ㄷ-ㄹ’은 올바르게 ‘ㄴ-ㄱ-ㄹ-ㄷ’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ㄴ의 신라 향가, ㄱ의 고려가요, ㄹ의 조선 전기 악장, ㄷ의 조선 시대 시조 순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배열하였다.
③ X — ㄴ 다음에 ㄷ을 둔 부분이 잘못되었다. 신라 향가 ㄴ 다음에는 고려 시대 작품 ㄱ이 와야 하고, 조선 전기 작품 ㄹ이 ㄷ보다 앞선다. 틀린 배열 ‘ㄴ-ㄷ-ㄱ-ㄹ’은 올바르게 ‘ㄴ-ㄱ-ㄹ-ㄷ’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가장 이른 신라 향가 ㄴ을 세 번째에 둔 것이 잘못되었다. ㄴ은 ㄱ·ㄹ·ㄷ보다 앞서므로 맨 처음에 와야 한다. 틀린 배열 ‘ㄱ-ㄹ-ㄴ-ㄷ’은 올바르게 ‘ㄴ-ㄱ-ㄹ-ㄷ’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ㄴ의 낯선 표기만 보고 고려가요로 오인하거나, ㄹ과 ㄷ을 모두 조선 시대 작품이라는 이유로 세부 선후를 바꾸기 쉽다. ㄴ은 ‘암소를 놓고 꽃을 꺾어 바친다’는 「헌화가」의 내용으로, ㄹ은 왕조의 창업과 태평을 노래하는 조선 전기 악장의 어휘로 판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작품을 제목과 갈래에 연결하고, 향가 → 고려가요 → 조선 전기 악장 → 조선 시대 시조처럼 큰 시대 흐름을 세운다. 같은 시대의 작품이 섞인 경우에만 작가와 세부 창작 시기를 추가로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꽃을 바친 「헌화가」가 먼저이고, 임에게 결백을 호소한 「정과정」이 그다음이며, 조선에서는 왕조 악장이 시조보다 앞선다: ㄴ-ㄱ-ㄹ-ㄷ.

NoteBase

문 8. 문장 부호 규정과 사용법이 잘못된 것은?

	규정	사용법
①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숨김표(○)를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②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쌍점(:)을 쓴다.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③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겹화살괄호(《 》)를 쓴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④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하천 수질의 조사 · 분석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 부호의 기능과 실제 사용 예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빠짐표(□)는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비어 있음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숨김표(○, ×)는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는 내용이나 금기어 등을 대신 나타내는 부호이므로 빠짐표와 구별한다. 쌍점(:)은 서로 대비되는 관계를 나타낼 때, 겹화살괄호(《 》)는 책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가운뎃점(·)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 등에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숨김표(○)를 쓴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제시된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처럼 빈 글자의 자리를 나타낼 때에는 빠짐표(□)를 쓴다. 올바르게는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빠짐표(□)를 쓴다'이다.

② O — 의존 명사 '대'가 두 대상을 맞세우는 관계를 나타낼 때 쌍점(:)을 쓸 수 있으므로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은 규정에 맞는 예이다.

③ O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겹화살괄호(《 》)를 쓰므로 신문 이름인 《한성순보》의 표기는 적절하다.

④ O — 짝을 이루는 어구들을 나란히 제시할 때 가운뎃점(·)을 쓸 수 있으므로 '하천 수질의 조사 · 분석'은 적절한 표기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동그라미 모양만 보고 빈칸을 나타내는 부호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숨김표(○, ×)는 내용을 감추는 부호이고, 글자가 들어갈 빈자리를 표시하는 부호는 네모 모양의 빠짐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호의 모양보다 기능을 먼저 확인한다. 글자의 빈자리이면 빠짐표(□),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추면 숨김표(○, ×), 두 대상의 대비이면 쌍점(:), 책·신문 이름이면 겹화살괄호(《 》), 짝을 이루는 어구의 나열이면 가운뎃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빈자리는 빠짐표(□), 감춘 내용은 숨김표(○, ×)이다.

NoteBase

문 9.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아버지는 마음이 넓다.
㉡ 그 아이는 집으로 갔다.
㉢ 우리는 그가 담임 선생님임을 알았다.
㉣ 나는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가방을 멨다.

① ㉠에서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는 다르다.
②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③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④ ㉣에서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다르므로 생략되지 않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명사절·관형절·서술절의 문장 성분과 생략된 성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은문장은 다른 절을 문장 성분으로 포함한 문장이고, 안긴문장은 그 안에 포함된 절이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고, 관형절은 뒤의 체언을 꾸미며, 서술절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관형절에서는 꾸밈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안의 특정 문장 성분과 같은 대상을 가리키면 그 성분이 관형절 안에서 생략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 '아버지는 마음이 넓다.'에서 안은문장의 주어는 '아버지는'이고, 서술절 '마음이 넓다'의 주어는 '마음이'이다. 두 주어가 서로 다르다.
② O — ㉡ '그 아이는 집으로 갔다.'는 주어 '그 아이는'과 서술어 '갔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집으로'는 부사어이다.
③ O — ㉢의 '그가 담임 선생님임'은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알았다'의 목적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다. ㉣의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은 뒤의 명사 '가방'을 꾸미는 관형절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다르므로 생략되지 않았다'이다. ㉣의 관형절은 '어머니가 (가방을) 선물로 주신'으로 분석되며, 관형절 안의 목적어 '가방을'은 꾸밈을 받는 명사이자 안은문장의 목적어인 '가방을'과 같은 대상을 가리키므로 관형절 안에서 생략되었다. 올바르게는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므로 안긴문장 안에서 생략되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겉으로 드러난 '가방을'만 보고 관형절 안의 목적어가 생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겉에 나타난 '가방을'은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고, 관형절 내부에서는 '어머니가 가방을 선물로 주신'의 목적어가 생략된 구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절의 서술어를 찾고 그 서술어에 필요한 주어·목적어를 따로 확인한다. 관형절이 체언을 꾸미면 그 체언을 관형절 안에 넣어 보아 어떤 문장 성분이 되는지 판단한다. 자연스럽게 목적어가 되면 관형절 안의 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서술절은 주어를 서술하고, 명사절은 명사처럼 쓰이며, 관형절은 체언을 꾸민다.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 절 안의 목적어와 같은 대상이면 그 목적어는 절 안에서 생략될 수 있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바람이 부니 날씨가 상크름해서 기분이 좋다.
* 상크름하다: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하다.

② 그는 늘 자발없이 행동하여 경박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
* 자발없다: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

③ 그 일은 아퀴가 잘 안 맞을 적마다 그가 나서서 해결을 지었다.
* 아퀴: 일을 마무르는 끝매듭

④ 저녁이 되자 부엌에서는 구뜰한 된장국 냄새가 났다.
* 구뜰하다: 변변하지 않은 음식의 맛이 제법 구수하여 먹을 만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에 쓰인 낯선 고유어의 실제 뜻과 제시된 뜻풀이가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그름하다는 조금 신 듯한 맛이 있다는 뜻이고, 자발없다는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는 뜻이다. 아퀴는 일을 마무르는 끝매듭이며, 구뜰하다는 변변하지 않은 음식의 맛이 제법 구수하여 먹을 만하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하다'는 상그름하다의 뜻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하다'이며, 올바르게는 '조금 신 듯한 맛이 있다'이다.
② O — 자발없다는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는 뜻이므로, 경박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나타낸 문맥과 뜻풀이가 맞는다.
③ O — 아퀴는 일을 마무르는 끝매듭을 뜻한다. '아퀴가 맞다'는 일의 앞뒤나 끝맺음이 서로 들어맞는다는 문맥이므로 뜻풀이가 적절하다.
④ O — 구뜰하다는 변변하지 않은 음식의 맛이 제법 구수하여 먹을 만하다는 뜻이다. 된장국에서 먹음직스러운 구수한 냄새가 난다는 문맥과 뜻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오답 포인트

①의 '상그름하다'를 발음과 느낌이 비슷한 '상큼하다'와 혼동하기 쉽다. '시원하고 산뜻하다'는 풀이에 끌리지 않고, 상그름하다가 맛의 신 정도를 나타내는 말임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낯선 말이 가리키는 대상부터 확인한다. 맛을 나타내는 말인지,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인지, 일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말인지 구분한 뒤 제시된 뜻풀이와 한 요소씩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상그름하다=조금 신 맛, 자발없다=가벼운 행동, 아퀴=끝매듭, 구뜰하다=구수하여 먹을 만함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작품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어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汽笛)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벼개 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한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내면 의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유사한 시구의 변주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설의, 공간 이동, 시구의 변주, 반어가 작품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와 그 효과가 적절한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설의적 표현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형식으로 의미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시구의 변주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일부 바꾸어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확장하거나 주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반어적 표현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제 뜻이 반대가 되게 하는 표현이다. 이 작품의 끝부분에서는 '여기 하나의 … 있다.'라는 유사한 구조를 변주하여 상심 속에서도 굳세게 살아온 삶을 부각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였지만, 이를 전후로 화자의 감정이 다른 상태로 바뀌지는 않는다. 생계의 고단함과 피로를 강조한다. 틀린 표현은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생계에 쫓기는 화자의 고단함을 강조하고 있다'이다.
② X —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은 화자가 실제로 이동한 공간이 아니라 노신을 떠올리며 상상한 공간이다. 따라서 실제 공간 이동에 따른 내면 의식의 변화라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이며, 올바르게는 '노신과 그가 살았던 공간을 연상하여 자신의 고단한 삶을 성찰하고 있다'이다.
③ O —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와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는 '여기 하나의 … 있다.'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변주한다. 이를 통해 상심하면서도 굳세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부각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④ X — 작품에는 겉뜻과 속뜻이 반대인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의 태도가 반어를 계기로 변화하지도 않는다. 틀린 표현은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설의와 시구의 변주를 활용하여 생계의 고단함과 굳세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설의적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그 효과까지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표현법의 존재와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②는 상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공간 이동으로 오해하기 쉽고, ④는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겉뜻과 속뜻이 반대인 반어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선지는 먼저 해당 표현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선지에 제시된 효과가 문맥과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질문형 종결은 설의인지, 장소 제시는 실제 이동인지 연상인지, 유사한 구조의 반복은 단순 반복인지 변주인지, 반어는 겉뜻과 속뜻이 실제로 반대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여기 하나의 … 있다'의 변주가 상심한 사람과 굳세게 살아온 인생을 함께 부각한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글쎄, 그 일은 나도 잘 모르겠어.
②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③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④ 오월로 접어든 산골짝의 날씨는 이제야 겨우 봄기운이 느껴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 속에서 독립적으로 느낌이나 반응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다른 말을 꾸미거나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탄사: 말하는 이의 느낌·부름·대답 등을 나타내며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품사이다. 키워드는 '독립적인 느낌·반응'이다.
부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미며, 접속 부사는 앞말과 뒷말을 이어 주는 품사이다. 키워드는 '수식·접속'이다.
이 문항에서는 '글쎄'만 감탄사이고, '설마·그리고·이제야'는 모두 부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쎄'는 확실히 대답하기 어렵거나 망설이는 태도를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따라서 나머지 세 단어와 품사가 다르다.
② X — '설마'를 품사가 다른 말로 보는 것이 틀리다. '설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이라는 뜻으로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이며, 올바르게는 '설마는 부사이다'라고 판단한다.
③ X — '그리고'를 감탄사로 보는 것이 틀리다. '그리고'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며, 올바르게는 '그리고는 부사이다'라고 판단한다.
④ X — '이제야'를 감탄사로 보는 것이 틀리다. '이제야'는 '지금에 이르러서야'라는 뜻으로 '느껴진다'를 꾸미는 부사이며, 올바르게는 '이제야는 부사이다'라고 판단한다.

오답 포인트

'글쎄'와 '설마'는 모두 말하는 이의 태도가 드러나므로 같은 품사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글쎄'는 문장 성분과 독립된 감탄사이고, '설마'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꾸미는 부사이다. 또한 '그리고'는 문장을 잇지만 국어의 품사 분류에서는 접속 부사에 해당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느낌·대답 등을 독립적으로 나타내면 감탄사로 판단하고,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앞뒤 말을 이어 주면 부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글쎄’는 독립된 반응이므로 감탄사, ‘설마·그리고·이제야’는 수식하거나 이어 주므로 부사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작품의 서술 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김 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 있는 주 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우는 걸 보느니보다는 차라리 자기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기를 바랐다.
>
>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겐 없었다.
>
>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 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 일등병은 주 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
> "저 소릴 좀 듣게." /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
> "폿소릴세." /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렛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
> "어느 편 폽니까?" / "아군의 포야. 백 오십오 밀리의……."
>
> 이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위 편에서, /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
>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 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
>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 "폿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루 돌아 내려가면 된다!" /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
>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③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작품의 배경, 장면 구성, 대화, 공간 이동이 실제 서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서술상 특징은 작품에 실제로 사용된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장면 전환은 시간이나 장소가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것이고, 공간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는 인물이 실제로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내면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화는 인물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게 하여 이후 행동이나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배경 묘사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밤하늘의 별이나 멀리서 들리는 포성은 전쟁터의 상황을 드러내지만, 이 대목의 중심 기능은 인물들이 처한 위기와 긴장을 부각하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전쟁터의 밤과 멀리서 들리는 포성을 제시하여 인물들이 처한 위기 상황과 긴장감을 드러낸다'라고 해야 한다.

② X — '빈번한 장면 전환'이 틀린 표현이다. 작품은 전쟁터의 밤이라는 한 장면 안에서 김 일등병과 주 대위의 심리 및 대화를 이어 가며 긴장을 형성한다. 올바르게는 '동일한 전장의 밤 장면에서 인물의 내면과 대화를 교차해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인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김 일등병이 포성이 들리는 방향을 묻자 주 대위는 '동남쪽', 곧 두 사람이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의 왼쪽이라고 판단한다. 이 대화는 적군의 포가 있는 방향을 알아내고 그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④ X — '공간의 이동에 따라'가 틀린 표현이다. 두 인물은 아직 누워 있는 자리에서 실제로 이동하지 않았으며, 이동할 방향만 정한다. 주 대위의 심리는 죽음의 공포, 자결 결심, 탈출 가능성의 발견으로 변하지만 이는 공간 이동이 아니라 내적 독백과 김 일등병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올바르게는 '내적 독백과 인물 간 대화를 통해 변화하는 주 대위의 심리를 드러낸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전쟁터와 포성이라는 소재만 보고 ①의 '비극적 분위기'를 곧바로 고르거나, 인물에게 초점이 번갈아 맞춰지는 것을 ②의 '장면 전환'으로 오해하기 쉽다. 또한 탈출 방향을 정한 것을 실제 공간 이동으로 착각하면 ④를 고르게 된다. 본문에서 실제로 일어난 표현 방식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서술 용어를 본문과 일대일로 대조한다. 장면 전환은 시간·장소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공간 이동은 인물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대화의 기능은 그 대화 뒤에 행동 방향이나 해결 가능성이 생겼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장면 전환은 시간·장소의 변화, 공간 이동은 실제 움직임, 사건의 실마리는 이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이다.

문 14.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제 우리는 둘러앉아 군밤과 밤고구마를 먹었다.

① 이 문장에서 파생어는 1개이다.
② 이 문장에서 복합어는 3개이다.
③ 이 문장은 6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④ 이 문장은 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 문장을 어절과 단어로 나누고, 합성어·파생어를 구별하여 복합어의 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절은 문장을 띄어 쓴 단위이고,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조사처럼 자립하는 말에 붙는 말 가운데 분리하여 셀 수 있는 단위이다. 어미는 단어로 세지 않는다.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며,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와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나뉜다. 이 문장의 '둘러앉다', '군밤', '밤고구마'는 모두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파생어는 1개이다'가 틀린 표현이다. '둘러앉다', '군밤', '밤고구마'는 합성어이고 접사가 결합한 단어가 없으므로, 올바르게는 '이 문장에서 파생어는 0개이다'이다.
② O — 복합어는 '둘러앉다', '군밤', '밤고구마'의 3개이다. 세 단어가 모두 합성어이므로 복합어의 수도 3개이다.
③ O —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어제 / 우리는 / 둘러앉아 / 군밤과 / 밤고구마를 / 먹었다'로 나뉘므로 6어절이다.
④ O — 조사를 별개의 단어로 세면 '어제 / 우리 / 는 / 둘러앉아 / 군밤 / 과 / 밤고구마 / 를 / 먹었다'의 9개이다. '둘러앉아'와 '먹었다'의 어미는 별개의 단어로 세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복합어를 파생어와 같은 뜻으로 오해하면 ①을 맞는 설명으로 판단하기 쉽다.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모두 포함하며, 이 문장의 복합어 3개는 모두 합성어이다. 또한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이지만 단어를 셀 때에는 붙여 쓴 조사 '는', '과', '를'을 각각 하나의 단어로 센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띄어쓰기 단위로 어절 수를 센다. 다음으로 체언과 조사는 각각 단어로 세되 어미는 단어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어의 구성 요소가 어근+어근이면 합성어, 어근+접사이면 파생어로 판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어절은 띄어쓰기, 단어는 조사도 하나,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의 합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과 시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차례 ㉠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
>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
>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
> – 이성복, '그 여름의 끝' –

① 간밤에 잠 살포시 / 머언 뇌성이 울더니, // 오늘 아침 바다는 / 포도빛으로 부풀어졌다.

– 정지용, '바다1' –

② 눈이 오는가 북쪽엔 /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 백무선 철길 위에 /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 이용악, '그리움' –

③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 탑을 흔들다가 /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

④ 겨울나무와 / 바람 /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 나무도 바람도 / 혼자가 아닌 게 된다.

– 김남조, '설일'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겉으로 비슷한 자연 현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의 문맥에서 각 시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폭풍'은 백일홍과 화자가 여러 차례 겪고도 쓰러지지 않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따라서 ㉠과 유사한 시어는 고통스러운 격동을 거친 뒤의 변화나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뇌성’은 밤사이 바다가 겪은 격렬한 변화의 계기이며, 그 뒤 바다가 ‘포도빛으로 부풀어’ 오르는 모습과 이어진다. 시련을 견딘 뒤 새로운 상태에 이른다는 점에서 ㉠ ‘폭풍’과 시적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② X — ‘눈’은 북쪽의 함박눈 내리는 풍경을 떠올리게 하여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이다. ㉠과 같은 시련이 아니라, 올바르게는 고향의 정경과 그리움을 환기하는 시어이다.
③ X — ‘돌개바람’은 ‘나의 울음’이 변한 것으로, 대상의 본질에 닿으려는 화자의 격렬한 몸부림을 나타낸다. ㉠과 같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올바르게는 화자 내면의 울음과 탐구 의지가 격화된 모습이다.
④ X — ‘바람’은 겨울나무의 가지 끝에 걸려 나무와 함께함으로써 서로 ‘혼자가 아닌’ 상태가 되게 하는 존재이다. ㉠과 같은 시련이 아니라, 올바르게는 겨울나무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다.

오답 포인트

‘폭풍’, ‘눈’, ‘돌개바람’, ‘바람’이 모두 자연 현상이라는 표면적 공통점만 보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특히 ③의 ‘돌개바람’은 격렬하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화자에게 닥친 고난이 아니라 화자의 울음이 변한 것이므로 ㉠과 기능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시어의 사전적 뜻을 먼저 맞추지 않고, 앞뒤 문장에서 그 시어가 누구에게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시련을 겪음 → 견딤 → 새로운 변화’라는 흐름이 같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암기 포인트

㉠ 폭풍과 ① 뇌성은 시련 뒤의 변화, 눈은 그리움, 돌개바람은 내면의 몸부림, 바람은 동반자이다.

NoteBase

문 16. ㉠~㉣ 중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 묶인 것은?

㉠ 음식을 먹을 만큼 담아라.
눈물이 날 만큼 고향이 그리웠다.
㉡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쟁반에 사과 다섯 개가 있다.
㉢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발이 커서 신발이 맞지 않는다.
㉣ 그는 충분히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허리가 아파 바르게 누워 자기가 어렵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 속 쓰임을 바탕으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판별하고, 두 단어의 품사가 같은 묶음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 '만큼'은 관형어 뒤에서 정도나 한도를 나타낸다. 수사는 수량을 독립적으로 나타내지만, 수 관형사는 뒤의 명사를 꾸민다. '크다'는 '자라다'의 뜻이면 동사이고 '크기가 크다'의 뜻이면 형용사이다. 동사 어간에 명사형 어미 '-ㅁ'이나 '-기'가 붙어 명사처럼 쓰여도 그 단어의 품사는 동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두 '만큼'이 모두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품사가 같지만, ㄴ은 품사가 다르다. '둘에 셋을'의 '셋'은 수사이고 '사과 다섯 개'의 '다섯'은 '개'를 꾸미는 관형사이다. 틀린 부분은 'ㄴ'을 같은 품사로 묶은 것이며, 올바른 묶음은 ㄱ과 ㄹ이다.
② O — ㄱ의 두 '만큼'은 모두 의존 명사이다. ㄹ의 '잠으로써'는 동사 '자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은 형태이고, '자기가'는 동사 '자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형태이다. 두 형태 모두 본래 품사가 동사이므로 ㄱ과 ㄹ이 품사가 같은 묶음이다.
③ X — ㄴ의 '셋'은 수사, '다섯'은 관형사이므로 품사가 다르다. ㄷ의 '커서'도 첫 문장에서는 '자라서'라는 뜻의 동사이고 둘째 문장에서는 '크기가 커서'라는 뜻의 형용사이므로 품사가 다르다. 틀린 부분은 ㄴ과 ㄷ을 같은 품사로 본 것이며, 올바른 묶음은 ㄱ과 ㄹ이다.
④ X — ㄷ의 두 '커서'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품사가 다르고, ㄹ의 두 형태만 모두 동사이다. 틀린 부분은 'ㄷ'을 같은 품사로 묶은 것이며, 올바른 묶음은 ㄱ과 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숫자를 나타낸다는 공통점만 보고 수사와 관형사를 같은 품사로 착각하기 쉽다. ㄷ에서는 형태가 같은 '커서'라도 '자라다'와 '크기가 크다'라는 뜻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로 갈린다. ㄹ에서는 '잠'과 '자기'를 명사로 보기 쉽지만, 이 문장에서는 각각 명사형 어미 '-ㅁ'과 '-기'가 결합한 동사 '자다'의 활용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품사를 정하지 않고, 문장 속 의미와 기능을 함께 확인한다. 수량 표현은 독립적으로 쓰이면 수사, 뒤의 단위를 꾸미면 관형사로 판단한다. 용언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형태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기능하더라도 본래 품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ㄱ은 의존 명사끼리, ㄹ은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끼리이다. 수사는 홀로 수량을 나타내고 수 관형사는 단위 명사를 꾸민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는 띄어쓰기 표시)

① 그는∨네팔∨인∨셰르파와∨함께∨에베레스트∨산∨등정에∨성공하였다.
② 그가∨십여∨년∨만에∨고국을∨찾아∨온∨것은∨매우∨큰∨사건이었다.
③ 그는∨이틀∨간∨집에∨머물렀고,∨그동안∨한∨끼도∨밥을∨먹지∨않았다.
④ 그는∨꿈속의∨기억이∨너무도∨생생해서∨지금도∨눈에∨떠오르는∨듯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미사가 붙은 말과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를 구별하고, 합성어의 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미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네팔인'의 '-인', '에베레스트산'의 '-산', '이틀간'의 '-간'은 앞말에 붙여 쓰며, '십여 년 만에'의 '년'과 '만', '떠오르는 듯했다'의 '듯'은 앞말과 띄어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네팔 인'과 '에베레스트 산'의 띄어쓰기가 틀렸다.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인'과 산 이름을 만드는 '-산'은 앞말에 붙이므로 '네팔인 셰르파와 함께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하였다'로 고쳐 쓴다.
② X — '십여 년'은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 명사 '년'을 띄어 쓴 것이고, 의존 명사 '만'도 앞말과 띄어 '십여 년 만에'로 쓴다. 그러나 '찾아오다'는 한 단어이므로 그 활용형도 '찾아온'으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찾아온'은 틀린 표기이다.
③ X — '이틀 간'의 띄어쓰기가 틀렸다. 기간을 나타내는 접미사 '-간'은 앞말에 붙이므로 '그는 이틀간 집에 머물렀고, 그동안 한 끼도 밥을 먹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④ O — '꿈속', '너무도', '지금도'는 각각 붙여 쓰고, 의존 명사 '듯'은 관형어 '떠오르는'과 띄어 '떠오르는 듯했다'로 쓴다. 모든 띄어쓰기가 바르다.

오답 포인트

접미사 '-인·-산·-간'을 독립된 명사처럼 띄어 쓰는 것이 함정이다. 반대로 ④의 '듯'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지만, 뒤의 '하다'와 결합한 '듯하다'는 붙여 써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띄어쓰기 표시마다 말의 성격을 확인한다. 접미사이면 앞말에 붙이고, 의존 명사이면 앞말과 띄며, 사전에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이면 붙여 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접미사는 붙여서 '네팔인·에베레스트산·이틀간', 의존 명사는 띄어서 '십여 년 만에·떠오르는 듯했다'로 쓴다.

문 18. ㉠의 표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 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

①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
②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열망을 보여준다.
③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삶의 고단함을 강조한다.
④ 다시 절망이 와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과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바탕으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적 표현의 의도는 해당 구절만 떼어 보지 않고 지시어의 대상, 앞뒤 내용,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의 '그걸'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과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화자는 삶의 땅끝에서도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하며, 그것을 보려고 앞으로도 몇 번은 이곳에 다시 이르리라고 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에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며, 올바르게는 삶의 위태로운 순간에도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나아가겠다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② X — '또 몇 번은'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삶의 끝에 다시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틀린 표현은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열망'이며, 올바르게는 미래의 고난에도 다시 땅끝에 서서 그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야 한다.
③ X — 시 전체에는 힘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의 중심 의도는 고난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삶의 고단함을 강조한다'이며, 올바르게는 고난이 되풀이되어도 그 속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확인하며 견디겠다는 태도를 강조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은 앞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닥치더라도 그곳에서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하며 굴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오답 포인트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와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같은 고통의 묘사에만 주목하면 ①이나 ③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의 핵심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걸 보려고' 다시 이곳에 이르겠다는 미래 지향적 의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구절의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찾고, 시제와 반복 표현을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그걸'의 대상과 미래를 나타내는 '또 몇 번은 … 이르리라는 것'을 연결하면 화자가 절망에 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지시어의 대상과 미래 표현을 연결한다. '그걸 보려고 또 이르리라'는 고난 속 희망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이다.

NoteBase

문 19. 고전 문학사의 시대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삼국 시대: 차자(借字) 표기 방식을 활용한 향가(鄕歌)가 새롭게 출현하였다.
② 고려 시대: 지배층의 한문 문학과 피지배층의 구비 문학으로 양분되었으며 시조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③ 조선 전기: 새로운 정음(正音) 문학이 발흥하고 각종 구비문학이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김천택, 김수장 등에 의하여 가집(歌集)의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④ 조선 후기: 국문 소설이 전기수(傳奇叟)와 세책가(貰冊家) 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전 문학사의 각 시대와 대표 갈래·기록 방식·유통 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삼국 시대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차자 표기로 향가가 형성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지배층의 한문 문학과 피지배층의 구비 문학이 함께 이어졌고 시조가 새롭게 나타났다. 조선 전기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정음 문학이 발달했으며, 김천택·김수장 등이 가집을 활발히 편찬한 때는 조선 후기이다. 조선 후기에는 전기수의 구연과 세책가의 대여를 통해 국문 소설이 널리 유통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삼국 시대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리는 차자 표기 방식으로 향가가 새롭게 나타났으므로 시대와 특징의 연결이 적절하다.
② O — 고려 시대에는 지배층 중심의 한문 문학과 피지배층 중심의 구비 문학이 함께 전개되었고, 시조가 새롭게 등장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조선 전기'에 김천택·김수장 등이 가집을 활발히 편찬했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정음 문학의 발흥은 조선 전기의 특징이지만, 김천택의 『청구영언』과 김수장의 『해동가요』를 비롯한 가집 편찬의 활성화는 조선 후기의 특징이다.
④ O — 조선 후기에는 전기수가 국문 소설을 읽어 주고 세책가가 책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소설이 폭넓게 유통되었으므로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훈민정음 창제 뒤 정음 문학이 발달했다는 조선 전기의 사실과, 김천택·김수장의 가집 편찬이라는 조선 후기의 사실을 한 선지에 섞었다. 선지 앞부분이 맞더라도 인물과 저작의 활동 시기까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대별 핵심 표지를 먼저 대응한다. 삼국 시대는 차자 표기와 향가, 고려 시대는 한문 문학·구비 문학의 병존과 시조의 등장, 조선 전기는 훈민정음과 정음 문학, 조선 후기는 가집 편찬과 국문 소설의 대중적 유통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향가는 삼국, 시조의 등장은 고려, 정음 문학은 조선 전기, 김천택·김수장의 가집과 전기수·세책가는 조선 후기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화폐는 한 나라의 역사와 경제력을 비춰 주는 거울이다. 화폐를 보면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 기술력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화폐는 한 나라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무언의 외교관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화폐를 '나라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화폐의 디자인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화폐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화폐 디자인의 소재로 인물을 많이 사용해 왔다. 신사임당이 5만 원권에, 세종대왕이 1만 원권에, 이이와 이황이 각각 5천 원권과 1천 원권에 등장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화폐의 뒷면이나 앞면의 보조 소재로는 우리나라의 발달한 과학 기기와 뛰어난 예술 작품이 사용되었다. 5만 원권에는 신사임당의 '묵포도도'와 어몽룡의 '월매도'를, 1만 원권에는 혼천의, 광학 천체 망원경, 천상열차분야지도를, 5천 원권에는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1천 원권에는 정선의 산수화를 담았다. 각계의 인물과 문화를 폭넓게 아우른 셈이다.

유럽의 경우, 유로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화폐에 자기 나라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프랑스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나 화가 폴 세잔,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브 에펠 등을 화폐 디자인에 등장시켜 예술의 나라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탈리아 역시 화가 라파엘로와 작곡가 벨리니, 조각가 베르니니, 아동 교육가 마리아 몬테소리를 화폐의 주인공으로 썼다. 독일은 피아노 연주가 클라라 슈만, 수학자 가우스, 동화작가 그림 형제, 건축가 노이만 등을 내세웠다.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 소재로는 인물이 가장 많아 전체의 83.2%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조각상, 건축물, 동식물 등의 순으로 많은데 인물 중에는 정치인(66.9%)이 가장 많고, 문화 예술인(30.7%), 일반 대중(2.4%)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화폐의 소재로 인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높고 위조와 변조를 막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달러이다.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 구실을 하는 데다가 디자인이 자주 바뀌면 위조나 변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건국 초기의 남성 정치인이 화폐의 소재로 쭉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화폐는 시대를 반영한다. 한국은행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화폐의 소재는 '정치에서 문화로, 사람에서 자연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인간 중심의 시대에서 벗어나 문화와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예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집트의 아부심벨 신전과 온두라스의 마야 유적이 화폐의 소재가 되고 있다. 또한 동식물도 화폐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핀란드의 자작나무와 수리남의 시계꽃이 그 예이다. 특히 코모로가 바닷물고기 실러캔스를, 아랍에미리트가 희귀 동물 오릭스를 화폐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김창석, '화폐와 디자인' -

① 화폐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력을 반영한다.
② 유로화에는 예술인이, 달러에는 정치인이 많이 등장한다.
③ 최근 화폐의 소재는 문화와 자연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④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 소재로는 인물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지문에 제시된 화폐 디자인의 소재와 그 적용 대상·시기를 선지와 정확히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 정보뿐 아니라 대상과 시기의 범위까지 지문과 같아야 한다. 지문은 유로화 자체가 아니라 유로화가 생기기 전 유럽 각국의 화폐에 예술가와 역사적 인물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 첫 문단은 화폐가 한 나라의 역사와 경제력을 비추는 거울이며 전통과 문화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화폐가 그 나라의 역사·문화·경제력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지문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유로화에는 예술인이 많이 등장한다'이다. 지문은 유로화가 생기기 전 유럽 각국이 자국 화폐에 왕, 작곡가, 화가, 조각가, 작가 등을 등장시켰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유로화가 생기기 전 유럽 각국의 화폐에는 예술인 등이 많이 등장했고, 달러에는 미국 건국 초기의 남성 정치인이 주로 사용되었다'이다.

③ O - 지문은 최근 화폐의 소재가 '정치에서 문화로, 사람에서 자연으로' 바뀌어 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문화와 자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은 지문과 일치한다.

④ O - 지문은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 소재 가운데 인물이 8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인물이 가장 많이 쓰인다는 내용은 지문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유럽 각국의 화폐에 예술인이 많이 등장했다는 사실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지문의 시기는 '유로화가 생기기 전'이므로 이를 현재의 '유로화'라고 바꾸면 대상과 시기의 범위가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선지는 주어, 시기, 범위, 수치의 네 요소를 지문과 대조한다. 핵심 사실이 비슷해도 '이전'과 '이후', '각국의 화폐'와 '공통 화폐'가 바뀌면 불일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로화 이전 유럽 각국 화폐에는 예술인, 달러에는 건국 초기 남성 정치인이 등장한다.

NoteBase